

## 金·元代の 陶淵明 研究

金 周 淳\*

<目 次>

I. 序 言	V. 金·元時代の 和陶詩
II. 金·元代 詩人の 陶淵明에 대한 仰慕	VI. 陶淵明에 관한 題畫詩
III. 陶淵明 詩文의 藝術風格	VII. 《陶淵明集註》의 發刊
IV. 陶淵明과 다른 詩人 과의比較	VIII. 結 語

### I. 序 言

遼는 거란족이 중국 북방과 동북지역에 건립한 왕조(907~1125)로서 그 구역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天津에서부터 황하강 북쪽 霸縣에 이르렀고, 五代와 北宋이 이 구역에서 대치하였다. 遼가 衰落하자 女眞族이 건립한 金(1115~1234)이 일어나서 통치범위는 남쪽으로 淮河와 秦嶺까지 확장되어 南宋과 대치하였다. 이어 일어난 몽고족이 쫓기하여 세력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金을 멸망시키고 북방을 통일하여 元을 세웠다.(1271) 元은 南宋을 멸하고(1279) 중국을 통일하였다가 1368년에 망하였다.<sup>1)</sup>

遼·金·元 시기 문학은 앞의 다른 왕조와 비교해 보면 詩·詞·散文 등의 문학양식이 상대적으로 쇠미하여서 당시에 발생한 元曲이 唐詩·宋詞에 비해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연명에 대한 연구는 과거 왕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鍾優民, 《陶學史話》, 臺北, 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1991, 76 쪽 참조.

조에 없었던 새로운 각도로 탐구되어 다방면에서 그 성과가 나타났다.

本稿는 ‘金·元代의 陶淵明 研究’를 探討함에 있어 먼저 ‘金·元代의 도연명 仰慕’의 현황을 알아보고, ‘陶淵明의 藝術風格’, ‘陶淵明과 다른 詩人과의 比較’, ‘金·元時代의 和陶詩’, ‘陶淵明에 관한 題畫詩’, ‘《陶淵明集注》發刊’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 II. 金·元代 詩人의 陶淵明에 대한 仰慕

### 1. 陶淵明에 대한 憧憬

金代의 대표 작가인 元好問(1190~1257)은 “내가 도연명과 위응물의 시를 좋아하니 시원스러이 氷玉을 두드리는 것 같네.(吾愛陶與韋, 冷然扣氷玉.)”<sup>2)</sup>라고 읊어 그의 시는 도연명의 시를 좋아하여 배운 후 힘을 얻었다고 시인하였다.

元代의 서화가이자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趙孟頫(1254~1322)는 도연명에 대해

斯人眞有道,	이 사람 참으로 도 있으니
名與日月懸.	이름은 해와 달처럼 빛을 발하네.
靑松卓然操,	지조와 절개는 푸른 소나무가 우뚝 솟은 것 같고
黃華霜中鮮.	서리 속에서 피어난 국화처럼 신선함 보이네.
棄官亦易耳,	벼슬 버린 것을 홀가분히 여기고
忍窮北窗眠.	가난 참으며 북쪽 창에 베개머리 하네.
撫琴三嘆息,	거문고 어루만지며 하루 세 번 탄식하니
世久無此賢. <sup>3)</sup>	세상에 오래도록 이 같은 현인 없었네.

2) 元好問, <繼愚軒和黨承旨雪詩>

3) 趙孟頫, <題歸去來圖>

라고 읊어 도연명의 명성을 해와 달의 빛남에 비유하였고, 그의 節概와 志操는 소나무처럼 푸르며, 후세에 오래도록 도연명만큼 어진 자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벼슬길에서 失意하고 落鄉했을 때 “집에 와서 소나무와 국화에게 물으니, 일찍이 벼슬하고픈 생각 사라지네.(到家問松菊, 早作解官計.)”<sup>4)</sup>라고 읊었다. 이것은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세 갈래의 좁은 길은 황폐하였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오히려 옛 그대로다.(三徑就荒, 松菊猶在.)”라는 詩想을 援用한 것이며, 이로써 벼슬길에서의 失意에 대한 위안으로 삼고자 했다.

金代의 시인 蔡松年(1107~1159)이 “뜰 앞에 흐르는 물은 옥소리 울리는 도랑이니, 나의 오두막집을 사랑하여 그윽히 거주함에 흡족하다.(階前流水玉鳴渠, 愛吾廬, 愜幽居.)”<sup>5)</sup>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讀山海經> 시에 나오는 “나의 오두막집을 사랑하노라.(愛吾廬)”를 원용하여 세상의 名利를 잊고 전원엔 은거하여 자연을 벗삼아 살아간 도연명의 삶에 자신의 삶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 2. 憂國表情의 愛國者

도연명의 증조부 陶侃은 晉代에 司馬 벼슬을 지낸 재상이었다. 그래서 도연명은 劉裕가 晉을 찬탈하여 宋을 세우자 그의 詩題로 써오던 晉代年號를 甲子年號로 바꾸었다. 이것은 晉代 충신집안의 자식으로서 충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송대 虎口僧 思悅이 주장<sup>6)</sup>한 이후 金·元代 문인들도 당시의 역사현실 앞에서 도연명의 애국정신을 부각하는 시를 읊었다. 이러한 애국심은 姚燧(1239~1314)가 “도연명이 벼슬자리에 있는 즉 그 마음은 임금을 잊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다가 불가함을 깨닫자 허리띠를 매고 督郵 만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벼슬을 버리고 떠나니 바로 공자가

4) 趙孟頫, <庚申閏月從師還自穎上, 對新月獨酌.>

5) 蔡松年, <江城子>

6) 鍾優民, 앞의 책, 43쪽.

제사에 쓸 고기가 이르지 않자 작은 죄라고 여긴 뜻과 같다.(陶潛既仕矣, 則其心爲不忘君, 知其不可, 以恥束帶見督郵爲目以去, 正得孔子燔肉不至微罪行之遺意.)<sup>7)</sup>라고 한 말에서 음미할 수 있다.

당시 草廬선생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吳澄(1249~1337)은 “이 뜻과 절개를 품고서 왕조가 바뀐 다른 시대에서 어찌 두 사람의 성을 차마 섬겨 수치를 삼겠는가? <述酒>·<荊軻> 등의 작품을 보면 거의 蜀漢의 재상인 諸葛孔明의 일을 하고자 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자식을 책하는 시가 있고, 자식에게 주는 疏가 있으며, 뜻과 취향이 같고, 괴롭고 즐거움이 안존하였으니, 한 집안의 부자·부부에 대한 도리도 또 이와 같았다. 대저 사람의 도리인 세 강령을 버리 삼아 선생께서는 몸소 三綱을 실천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充此志節, 異時詎肯忍, 恥於二姓哉? 觀<述酒>·<荊軻>等作, 殆欲爲漢相孔明之事, 而無其資. 賁子有詩, 與子有疏, 志趣之同, 苦樂之安, 一家父子夫婦又如此. 夫人道三綱爲首, 先生一身而三綱舉無愧焉)”<sup>8)</sup>라고 평하여 도연명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강하였고, 儒家의 綱領인 君臣·父子·夫婦의 도리를 실천하는데 사대부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다.

도연명의 <述酒> 시에 대하여 吳師道(1283~1344)는 “연명의 이 시는 그의 군주가 시해 당하고 나라가 망한 것을 분노한 것이다.(陶公此詩, 憤其主弑國亡.)<sup>9)</sup>라고 강렬한 애국심을 부각시켰으며, 陳繹曾은 “도연명은 마음속으로 충의를 품으면서, 마음은 한가하고 편안함에 두었다(陶淵明心存忠義, 心處閑逸)”<sup>10)</sup>라고 평하여 도연명의 애국정신과 함께 田園閑居 생활을 아울러 부연하였다.

元代 末年에 劉履(?~1383)는 도연명의 <歲暮和張常侍> 시에 대하여 “《晉史》에 의하면 義熙十四년 12월 劉裕가 東堂에서 安帝를 폐위시키고 恭帝를 내세웠다. 연명은 이 歲暮詩에서 그 시를 알맞게 지어 이 뜻을 의

7) 姚燾, <歸來園記>

8) 吳澄, <湖口縣靖節先生祠堂記>

9) 吳師道, <吳禮部詩話>

10) 陳繹曾, <詩譜>

탁하였다.(按《晉史》義熙 十四年十二月, 宋公劉裕幽安帝於東堂而立恭帝. 靖節和此歲暮詩, 蓋亦適當其詩, 而寄此意焉.)”<sup>11)</sup> 라고 말하여 이 시의 창작배경은 劉裕가 정권을 찬탈하여 宋을 세운 데에 대한 울분으로 보았다. 또한 金代 王若虛(1174~1243)도 “하찮은 벼슬 버리니 한껏 자유스러워, 따라서 한 치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네. 근심을 없애고자 더욱 거문고와 책의 힘을 빌리니, 잠시 연명은 숨은 근심이 있었는지 묻네.(拋欲微官百自由, 應無一字掛心頭. 銷憂更藉琴書力, 借問先生有底憂)”<sup>12)</sup>라고 읊어 도연명은 나라 일에 대한 근심으로 시종 충성스러운 울분을 버리지 못해 거문고와 책에 의탁하여 그 시름을 잊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金·元代の 시인들은 唐·宋代의 시인들이 도연명 시의 주제를 田園閑居에 중점을 둔 것 이외에 이렇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한 것은 당시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정치·사회의 시대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때는 많은 漢族의 사대부들이 그들의 조국인 南宋이 멸망하자 그들의 수하인들과 친지들을 데리고 中原을 떠나 亡國에 통탄하며, 애국적인 감정으로 북받쳐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비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 3. 儒家思想의 實踐者

도연명의 철학사상은 金·元時期에도 계속 주요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도연명이 佛門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유지한 것에 대해 宋九嘉(1184?~1233)는 “장하도다! 버티던 기둥은 풍파 속에서 쇠하여졌으나, 오직 연명만은 끌어당기지 못하였네.(槩哉! 抵柱頽波裏, 唯有淵明挽不來.)”<sup>13)</sup>라고 읊어 이민족으로부터 발생된 불교가 중국 천하를 혼미하게 하였을 때 도연명만은 이에 물들지 않았다고 칭송하였다.

張雨는 <淵明>이라는 시를 지어

11) 劉履, <歲暮和張常侍>

12) 王若虛, <題淵明歸去來圖>

13) 宋九嘉, <蓮社圖>

乘輿廬山招,    혜원의 부름에 흥이 나서 마음이 내키기에  
 籃輿亦遲遲.    몸을 실은 가마는 가기가 더디기만 하네.  
 聞鐘便回首,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문득 머리를 돌려  
 更用一攢眉.    처음의 흥겨움과는 달리 눈살을 찌푸렸네.

라고 읊은 시가 있다. 이 시는 도연명과 관련된 東林寺 주지로 있는 慧遠法師가 뜻이 높은 隱逸者들을 불러 白蓮寺에서 結社하고자 도연명을 초청하였는데, 도연명은 술 마시는 것을 허락 받고 초청에 응하였으나, 東林寺에 이르렀을 때 절에서 갑자기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술 마시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갔다는 故事<sup>14)</sup>를 援用하여 어려서부터 儒家의 가르침을 받은 도연명에게는 근본적으로 佛道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虞集(1272~1348)이 “연명은 만물의 이치에 밝아 세상의 변화에 느낌이 있어 <讀山海經>을 지으니 대략 인간세상의 일을 말하지 아니 하다(陶淵明明乎物理, 感乎世變, <讀山海經>諸作, 略不道人世間事.)”<sup>15)</sup> 라고 도연명과 仙界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吳師道는 도연명이 지은 <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 시에서 “거친 배옷 입고도 즐거웠으며, 뒤주가 비어도 노상 태연했노라.(被褐欣自得, 屢空常晏如.)”와 <五柳先生傳>에서 “짧고 거친 배옷을 더덕더덕 기워 입고 있었으며, 밥그릇이나 표주박조차 자주 비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태연하게 지냈다.(短褐穿結, 箠瓢屢空, 晏如也.)”, 그리고 <飲酒其十一> 시에서 “안연은 인덕으로 이름이 높았고, 영계기는 도통했다고 칭송되었으나, (안연은) 노상 뒤주가 비었고 일찍 죽었으며, (영계기는) 늙도록 굶주림에 시달렸다.(顏生稱爲仁, 榮公言有道, 屢空不獲年, 長飢至於老)” 등에서 나온 “屢空”은 《論語·先進

14) <蓮社高賢傳>: “遠法師與諸賢結蓮社, 以書招淵明, 淵明曰 ‘若許飲則往 許之 遂造焉; 忽攢眉而去.’”

《廬阜雜記》: “遠師結白蓮社, 以書招淵明. 陶曰: ‘弟子嗜酒, 若許飲, 即往矣.’ 遠許之, 遂造焉, 因勉令入社, 陶攢眉而去”

15) 虞集, <胡師遠詩集序>

篇》에서 “안회는 도에 가까이 도달했으나, 노상 가난하여 뒤주가 비었다.(回也其庶乎, 屢空)”라고 공자가 顏回的 ‘固窮節’ 생활에도 道를 지키는 태도에 칭찬했던 “屢空”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도연명은 儒家의 가르침에 따라 ‘固窮節’을 몸소 실천한 儒家思想家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劉履가 도연명의 <飲酒> 시를 예 들어 “서산진씨가 연명의 학문은 경전 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에서 서술한 바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西山眞氏謂淵明之學自經術中來, 今觀此詩所述, 蓋亦可見.)”<sup>16)</sup>라고 한 평에서도 도연명의 주요사상은 儒家思想이 바탕이 되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특히 도연명의 <桃花源詩并記>에서 도연명이 그린 ‘桃花源’은 神仙世界의 표현이 아니라 南宋 말년 장기간에 걸친 戰亂으로 인해 당시 민중들이 갈망한 도피처라고 趙孟頫가 그의 <題桃源圖><sup>17)</sup>라는 題畫詩에서 밝힌 것을 보면, 도연명은 당시 유행하던 玄學이나 老莊思想에 깊이 빠져 竹林에 들어가 詩酒로 방탕하게 세월을 보낸 竹林七賢과는 달리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sup>18)</sup>라는 儒家思想의 방식에 의해 참삶을 살아간 실천자임을 부각 시켰다.

#### 4. 田園歸居의 隱逸者

齊·梁 평론가들이 도연명은 전원에 은거하여 자연을 벗삼아 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한 자라고 평한<sup>19)</sup> 이후 唐·宋代 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金·元代에 들어와서는 도연명을 새로운 각도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

16) 劉履, <選詩補註>

17) 趙孟頫, <題桃源圖>: “戰國方忿爭, 嬴秦復狂怒, 冤哉魚肉民, 死者不知數. 斯人逃空谷, 是殆天所怒, 山深無來徑, 林密絕歸路. 艱難苟生活, 種蒔偶成趣. 西鄰與東舍, 鷄犬自來去, 熙熙如上古, 無復當世慮.”

18) <論語·泰伯篇>

19) 蕭統, <陶淵明傳>: “語時事則指而可想, 論懷抱則曠而且真, 加以貞志不休, 安道守節, 不以躬耕爲恥, 不以躬耕爲恥, 不以無財爲病.”

鐘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

었다.

趙孟頫(1254~1322)는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 은거한 것에 대해 “연명이 귀거래사를 짓고 좋은 곳이라고 쉬이 말하지 아니하였네, 후인이 많이 사모하여 본받으려 하고 혹 애써 닮으려 하나, 마침내는 연명을 따라갈 수 없어 티끌 속에서 굽어보고 우러르기만 하네.(淵明賦歸來, 佳處未易言。後人多慕之, 效顰或蚩研。終然不能去, 俛仰塵埃間)”<sup>20)</sup>라고 읊어 세상 사람들이 도연명을 본받고 가까이 하려 했지만, 도연명 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元代 초기의 王惲(1228~1304)도 “고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로는 잘 본받았다고는 하나 능히 실천한 자는 드물다. 그 말한 바를 능히 始終 바꾸지 않고 실천한 자는 오직 도연명뿐이니, 이것이 옛 隱者들보다 높이 칭송한 까닭이다.(古今聞人, 例善於辭, 而克行之者鮮。踐其所言, 能始終而不易者, 其惟淵明乎, 此所以高於千古人也.)”<sup>21)</sup>라고 말하여 고금을 통해 벼슬에 미련을 두지 않고 ‘固窮節’을 실천한 사람은 도연명 한 사람뿐이라고 칭송하였다. 사실 다른 魏晉人들은 玄學과 老莊思想의 승상으로 입으로는 맑고 깨끗함을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두가 관직을 하고픈 욕망으로 가득 차서 권세를 빌어 재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오직 도연명만은 그러하지 아니 하였다.

도연명이 그의 <歸去來辭>에서 “속세와 나는 서로 어긋나서 맞지 않거늘.(世與我而相違)”이라고 읊으며 歸隱한 것에 대해 王若虛는 세상이 도연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도연명이 세상을 버린 것이라고 그의 시에서 지적<sup>22)</sup>한 것은 도연명에 대한 관찰의 각도와 척도가 상당히 유별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李俊民(1176~1260)도 도연명의 隱逸에 대하여 “선생은 이제껏 곤은

20) 趙孟頫, <題歸去來圖>

21) 王惲, <書歸去來偶題於後>

22) 王若虛, <題淵明歸去來圖>: “孤雲出岫暮鴻飛, 去往悠然兩不疑。我自欲歸歸便了, 何須更說世相遺。”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소인배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 비웃으며 전원으로 돌아가 문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춘풍을 즐기네. (先生從來寄傲, 肯向小兒鞠躬! 笑地田園歸去, 門前五柳春風.)”<sup>23)</sup>라고 읊어 전원애 歸隱한 도연명의 인품과 氣概를 높이 칭송하였다.

### III. 陶淵明 詩文의 藝術風格

金·元시대의 문인들은 도연명의 시에 대한 藝術風格의 연구에 새로운 담구와 성과가 있었다. 元好問(1190~1257)은 그의 <論語絕句> 시를 통해

一語天然萬古新, 한 마디 어휘는 자연스럽고 영원히 새로워  
 豪華落盡見眞淳. 호화로운 꽃이 다 떨어져도 참 순박함 보이네.  
 南窗白日羲皇上, 남창에 내리쬐는 햇살은 태고적 복희씨를 가리키나  
 未害淵明是晉人. 어찌 연명이 진나라 때의 인품 아니리오.

라고 읊어 도연명 시의 風格은 인품과 어우러져 예스럽고 질박하다고 하였다. 宋의 葛立方이 “평이하고 담박해지려면 스스로 곱게 지너온 바탕에 꽃향기를 내뿜은 연후에야 평담한 경지를 이룰 수 있다.(欲造平淡, 當自組麗中來. 落其華芬, 然後可造平淡之境)”<sup>24)</sup>라고 한 평과 徐駿이 “연명의 시는 담박하고 연원이 깊어 멀리 세속을 벗어났으니 대개 성정으로 읊었기 때문이다. 후세에는 오직 도연명·위응물·유종원만이 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나, 거의 그 형태만을 논하여 말한 것이지 그 정신을 논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陶淵明詩淡泊淵永, 復出流俗, 蓋其情性使然也. 後世獨稱陶·韋·柳爲一家, 殆論其形, 而未論其神也)”<sup>25)</sup>라고 평하여 세 사람의 예술

23) 李俊民, <淵明歸去來圖>

24) 葛立方, <韻語陽秋>

25) 徐駿, <<詩文軌範一則>>

풍모는 비슷하여서 외형상으로는 같은 운치를 보이거나, 도연명 시의 平淡自然에서 나온 詩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范德機(1272~1330)는 도연명의 시에 대하여 “한가롭고 가득한 모양을 함축하고 있어서 배우는 자가 불찰로 우월한 뜻을 잊어버린다.(含蓄優游, 學者不察, 失於迂闊)”<sup>26)</sup>라고 한 말은 도연명의 시를 본받으려는 자가 도연명 시의 창작 기본정신을 정확하게 이해와 파악을 못함으로 인해 자주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리는 식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은 金·元代에서도 唐·宋時代의 시인들처럼 도연명 작품의 특유한 예술기교에 대해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楊維禎(1296~1370)은 “연명의 성정은 야하지 않고 정신과 기질이 출중한 고로 시의 골격이 비속하지 않고 겉 표면도 비루하지 않다. 아! 이 시의 풍격은 후대에 더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칠진저.(其情性不野, 神氣不群, 故其骨格不痺, 面目不鄙. 嘻! 此詩之品 在後無尙也)”<sup>27)</sup>라고 읊어 도연명 시의 風格과 氣像은 후대 시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였다.

陳繹曾도 도연명의 시에 대하여 “정과 경이 참되고, 일과 뜻이 진실하니 거의 <古詩十九首>에 가깝다. 단지 시의 기운이 조금 누그러짐을 느낄 뿐이다. 그의 학문 조예는 정밀하고 자연스러워 도끼로 찍은 흔적이 없고, 또 <古詩十九首>의 표현에서 나온 것으로 盛唐의 여러 시인들의 風韻도 모두 이에서 나왔다.(情眞景眞, 事眞意眞, 幾於<十九首>矣; 但氣差緩耳. 至其工夫精密, 天然無斧鑿痕迹, 又有出於<十九首>之表者, 盛唐諸家風韻皆出此.)”<sup>28)</sup>라고 평한 것을 보면, 도연명 시의 藝術風格은 후대 시인들에게 영향이 대단히 컸음을 알게 해준다.

26) 范德機, 《木天禁語》

27) 《宋金元文論選》,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84, 581쪽.

28) 陳繹曾, 《詩譜》

#### IV. 陶淵明과 다른 詩人과의 比較

중국문학사에서 “은일 시인의 으뜸(隱逸詩人之宗也.)”<sup>29)</sup>이자 전원시의 개척자로서 일컬음을 받고 있는 도연명과 다른 역대 훌륭한 시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장점과 단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는 것은 중국 시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유익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元好問은 도연명과 謝靈運을 연계하여 두 사람의 좋은 점을 들어 “도연명과 사령운의 풍류는 백가에 이르니, 왕안석의 노안에는 깨끗하여 엷은 자국이 없다.(陶·謝風流到百家, 半山老眼淨無花)”<sup>30)</sup>라고 말하여 두 사람의 문체는 고상한 風格을 주어서 광대한 독자를 擁有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方回는 사령운의 시와 도연명의 시를 비교하여 “세상 사람들이 도연명과 사령운의 시를 칭찬하거늘 도연명에게 어찌 사령운이 가히 비한다 하리오! 연못가의 풀은 진실로 시들지 않고, 섬돌 곁에 심은 약초는 화려함을 더하네. 당나라에서는 원호문과 백거이를 일컬으나, 백거이에게 어찌 원호문이 가히 비킨다 하리오!(世稱陶謝詩, 陶豈謝可比! 池草固未雕, 階藥已頗綺. 如唐號元白, 白豈元可擬!)”<sup>31)</sup>라고 읊어 도연명의 시가 사령운의 시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였다.

楊維禎(1296~1370)이 “나는 일찍이 도연명과 사령운을 평하건데 산을 사랑하는 즐거움은 같은 것인데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령운은 산을 쳐서 길을 터 수백 인이 始寧에서부터 臨海까지 들어오게 하고 고심 참담하여 궁리하다가 하루를 쉴 수 없었으니 그가 산에서 얻은 것은 거주장스런 외모일 것이다. 오류선생은 끝채를 끊어버리고 나가지 아니하여 하루 아침 울타리에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이것을 보고 유연히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산에서 얻은 것은 신령스러운 인품

29) 鍾嶸 《詩品》

30) 元好問, <自題中州集後>

31) 方回, <晚秋雜詩>

이다.(吾嘗評陶謝, 愛山之樂同也, 而有不同者. 何也? 康樂代山開道, 入數百人, 自始寧至臨海, 敝敝焉不得一日以休, 得一於山者稍矣. 五柳先生斷轅不出, 一朝於籬落間見之, 而悠然若莫逆也, 其得於山者神也.)<sup>32)</sup>라고 말한 것은 두 사람의 기거동작과 생각이 멀고 다름을 지적한 것이다. 즉 謝靈運의 山水詩는 바깥 면의 풍경을 감상하는데 지나지 않은 반면에 도연명의 전 원시는 내면의 깊고 오묘함을 음미할 수 있다는 말이다.

趙秉文(1159~1232)은 도연명과 백거이의 시에 대하여 “도연명과 백락천의 시는 덕이 높은 선비의 시이다. 나는 그들의 뜻을 스승으로 삼은 것이지 그들의 시어를 본 받은 것은 아니다.(淵明, 樂天, 高士之詩也, 吾師其意, 不師其辭.)”<sup>33)</sup>라고 평하여 두 사람 시의 뜻은 깊고 맑으며 깨끗한데다가 욕심을 없게 해주기 때문에 본받았다고 하였다. 元好問도 “도연명은 당의 백락천이다.(陶淵明, 唐之白樂天)”<sup>34)</sup>라고 말하여 백락천을 도연명에 비교하였듯이 그 당시 문단에서는 이러한 비교의 풍류가 자연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王寂(1128~1194)은 謝靈運·陶淵明·嵇康·阮籍을 아울러 논하여 “사령운의 산수시, 도연명의 거문고와 술에 관한 시, 혜강의 쇠붙이를 달구어 두드리는 시, 완적의 나막신을 읊은 시들은 비록 그 칭탁하는 바가 같지 않을 지라도 역시 각기 가는 바가 도리에 맞다.(如謝康樂之山水, 陶彭澤之琴酒, 嵇康之鍛, 阮孚之屐, 雖其所寓不同, 亦各適其適也.)”<sup>35)</sup>라고 말하여 네 사람이 모두 바깥 물건을 빌어 마음속의 울분이나 편안하지 않음을 표현하였지만, 각자 번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일치한다고 하였다.

吳澄(1249~1333)은 도연명과 屈原·張良·諸葛亮을 비교하여 “내가 일찍이 楚나라의 굴원, 韓의 장량, 蜀漢의 제갈량, 晉의 도연명 네 사람을

32) 楊維禎, <張北山和陶集序>

33) 趙秉文, <答李天英書>

34) 元好問, <論詩三十首自注>

35) 王寂, <三友軒記>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일도 같지 않고 시대를 만난 것도 같지 않으나,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한 가지로 같다. 한 가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밝힌 것이다.(予嘗謂楚之屈大夫 韓之張司徒 漢之諸葛丞相, 晉之陶徵士, 是四君子者, 其制行也 不同, 其遭時也 不同, 而其心一也. 一者何? 明君臣之義而已.)<sup>36)</sup>라고 하여 그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나 다른 환경에 처하여 각기 다른 임금을 섬겼지만, 오직 忠君愛國하고자 하는 뜻은 같았다고 하였다.

姚燧(1238~1313)는 “굴원이 군주를 사랑함과 주돈이가 도로 명성을 드날림과 도연명이 사리에 통달함과 임포의 지조가 굳음은 네 현인으로 능히 본받기에 족한 것인데, 또 어디 다른데서 구한다는 것인가!(屈原之愛君, 周子之鳴道, 陶潛之明達, 林逋之隘捐, 能法四賢足矣, 又何他求爲耶)”<sup>37)</sup>라고 말하여 陶淵明·屈原·周敦頤, 그리고 北宋의 은일시인 林逋 등 네 현인들은 모두 후세에 본보기가 되는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여 존경한다고 하였다.

戴表元(1244~1310)은 도연명이 관리생활을 그만둔 후 벼슬을 주어도 받지 않은 것<sup>38)</sup>을 魏나라 段干木과 비교하여 “내가 도연명을 평하건데 대략 段干木과 흡사하니 시문의 情趣가 비록 집안에 가득하다고 하나, 처자식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하였네. 우리러 청풍이 불어 가지에 스미는 것을 보고, 구부러 흰 구름이 골짜기에 자욱한 것을 보도다. 누가 능히 다섯 말의 쌀 때문에 고생스러이 벼슬자리에서 얻메이겠는가?(吾評陶淵明, 略似段干木, 詩文雖滿家, 不飽妻子腹. 仰瞻青風柯, 俯窺白雲谷. 誰能升斗, 辛苦羈束.)”<sup>39)</sup>라고 말하여 도연명이 栗里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固窮節’의 생활을 하며 은둔한 것과 段干木이 魏나라에서 벼슬에 뜻을 두지

36) 吳澄, <詹若麟淵明集補注序>

37) 姚燧, <歸去園記>

38) 李延壽, <南史隱逸傳>: “潛也, 何敢望賢, 志不及也. 道濟饋以梁肉, 麾而去之. ……義熙末, 徵爲著作佐郎, 不就.”

39) 戴表元, <韓君美經歷賦孟夏草木長五詩示僕因寫鄙懷通呈阮, 使君君美時與諸公講易>

않고 궁핍한 생활을 하며 은둔한 것을 같은 점으로 보았다.

## V. 金·元시대의 和陶詩

魏晉時代는 唯美主義 문학의 지향으로 形式美에 치중한 駢儷體를 중시하여 “百字로써 駢儷를 對偶하고 한 구절이라도 神奇한 것을 높이 친다 (儷采百字之偶, 爭價一句之奇).”<sup>40)</sup>라는 문단 풍조로 인해 彭澤승이라는 지방의 小官吏를 지낸 도연명이 質樸한 田家語의 구사로 농촌의 정경을 읊었으므로 당시 문단에서는 환영과 주시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연명이 죽은 후 100여년이 지나 梁代 鍾嶸이 도연명을 ‘은일 시인의 으뜸(隱逸詩人之宗也).’<sup>41)</sup>이라 칭송하자 당대 전원시파 시인들이 도연명을 전원시의 개척자로 추앙하였고, 송대의 대표시인 소동파가 중국 역대 시인들 중에서 도연명에 미칠 시인이 없다<sup>42)</sup>고 최고의 격찬을 하며 도연명의 시에 대해 109편의 和陶詩를 지은 후 도연명을 흠모하는 金·元代 시인들도 소동파의 和陶詩를 본받아 도연명 시에 대한 和陶詩를 지었다.

金代의 시인 劉從益(1181~1224)은 <和淵明飲酒韻> 라는 和陶詩를 지어 “벼슬길에서 나가고 들어갔다가 거문고를 끌어 당겨 속세의 시끄러움을 씻어 버리다. 가을 빛 어린 집에 한 등불이 밝게 비치고, 맑은 음향이 밤의 편벽된 곳까지 도달하다. 거문고 타던 줄을 그만두고 책을 베개삼아 누우니 아득하게 푸른 산이 꿈에 보이네. 산의 꽃봉오리가 나를 향해 묻거늘 그대는 수레를 타고 어느 때나 돌아오리오? 집의 아이종이 갑자기 소리 지르매 잠이 깨니 실망스럽고 탄식되어 말을 할 수 없네.(出入了公事, 援琴洗塵喧. 秋堂一燈明, 清響到夜偏. 彈罷枕書臥, 渺然夢青山. 山英向我問, 君駕何時還. 家僮忽喚覺, 惆悵不能言.)”라고 읊어 시 전체가 도연명

40) 胡雲翼 著, 張基樞 譯, 《中國文學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180 쪽

41) 鍾嶸 《詩品》

42) 蘇軾 <與蘇轍書>: “吾于詩人, 無所甚好, 獨好淵明之詩, 淵明作詩不多, 然其詩質而實綺, 癯而實腴, 自曹·劉·鮑·謝·李·杜·諸人皆莫及也.”

의 <飲酒其五><sup>43)</sup> 시에서 풍기는 고상하고 우아한 멋에 도취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蔡珪(?~1174)는 그의 시에서 “서풍에 달이 저무니 더욱 아름답다.(西風日夕佳)”<sup>44)</sup>라고 읊은 시구와 “서풍이 부는 먼 외국 땅에서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다.(西風絕境撫孤松)”<sup>45)</sup>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飲酒其五> 시에 나오는 “산 경치가 달이 저무니 더욱 아름답다.(山氣日夕佳)”라고 읊은 시구와 <歸去來辭>에 나오는 “외로운 소나무를 만지며 머뭇거리다.(撫孤松而盤桓)”라는 辭句를 원용하여 도연명 시에 和應하였다.

劉汲이 “정원에 핀 국화는 잎이 무성하고 집 둘레에는 새로운 수목이 보이네.(庭菊正扶疏, 繞屋看新樹)”<sup>46)</sup>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讀山海經>에서 나오는 “초여름이라 초목들이 자라고 집 둘레의 수목이 무성하다.(孟夏草木長, 繞屋樹扶疏)”의 시구에서 영향 받은 것이고, “내가 전원 에 돌아오니 어려움 없고, 세상일이 괴로워 서로 어긋나고 맞지를 않네.(吾歸不作難, 世故苦相違)”<sup>47)</sup>라는 시구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서 나오는 “속세와 나는 서로가 어긋나고 맞지 않거늘(世與我而相違)”을 援用한 것이며, “외로운 구름이 산골짜기에서 나오니 본래 아심이 없다(孤雲出岫本無心.)”<sup>48)</sup>의 시구도 도연명의 <歸去來辭>에서 나오는 “아심 없는 구름은 산골짜기로부터 유연하게 높이 떠오르고(雲無心以出岫)”를 援用된 것이다.

金·元時代에서 도연명 시를 본떠 쓰거나 和答한 시들은 어휘의 인용은 물론 도연명의 藝術風格까지 본 받았다. 元好問은 趙秉文의 五言詩를 “진실되고 순박함과 까다롭지 않고 담박함은 도연명과 같다.(眞淳簡淡似陶淵

43) 陶淵明, <飲酒其五>: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辨已忘言.”

44) 蔡珪, <霽川道中>

45) 蔡珪, <閭山>

46) 劉汲, <到家>

47) 劉汲, <平涼道中>

48) 劉汲, <家僮報西嶺栽植滋茂, 喜而成詠>

明)”<sup>49</sup>라 평하였고, 吳澄은 殷克己(1196~1254)와 殷成己(1199~1279) 형제가 지은 시에 대하여 “도연명의 達觀과 두보의 憂愁가 대체로 겸비하여 있다.(陶之達 杜之憂 蓋兼有之)”<sup>50</sup>라고 평한 것을 보면, 도연명의 작품은 金·元代 시인들의 사상에 깊숙이 침투되어 영향 준 바가 컸다. 한편 王若虛(1174~1243)가 “<歸去來辭>는 본래 한 편의 자연스럽고 진솔한 문자로 쓰여 있는데, 후인들이 모방하고 본뜬 것은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 하물며 그 시의 운을 따서 지은 시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歸去來辭>本是一篇自然眞率文字, 後人模擬已自不宜, 況可次其韻乎?)”<sup>51</sup>라고 말한 것은 도연명의 작품을 모방하여 본뜬 시나 도연명 시의 韻字를 따서 和答한 후인들이 지은 시들은 도연명 시의 깊은 韻致에 접근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한 것이다. 이것은 宋人 朱熹가 도연명 시에 화답한 和陶詩를 지은 시인들에 대해 “자연의 정취를 잃었다.(失其自然之趣)”<sup>52</sup>라고 한 평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王若虛는 소동파의 <和歸去來辭>에 대하여 “소동파는 <귀거래사>를 심히 사랑하여 그 韻에 次韻 하였고, 또 長短句를 널리 썼으며, 또 찢어 集字詩를 만들었는데 깨뜨리어 부스러뜨림이 심하다.(東坡酷愛<歸去來辭>, 既次其韻, 又衍爲長短句, 又裂爲集字詩, 破碎甚矣.)”<sup>53</sup>라고 비평을 하였지만, 楊維禎은 이 같은 비평과는 달리 “소동파의 연명에 대한 和答詩는 본래 연명에게서 빌어 쓴 시가 아니다. 해명한다면 연명의 뜻과 합치되는 것이 있으므로 그의 시에 화답한 것이라서 연명의 시인지 동파의 시인지 분간할 수 없다. 涪翁이 말하기를 ‘연명은 천 년에 한 번 나는 인물이고, 동파는 일백 년에 한 번 나는 선비이다. 출처는 진실로 같지 않으나, 그 정취는 곧 서로 비슷하다.’대개 동파의 시는 연명의 시와 비교할 만하다.(東坡和淵明詩, 非故假詩於淵明也. 見解有合於淵明者,

49) 元好問, <閒閒公墓銘>

50) 吳澄, <二妙集序>

51) 王若虛, <文辨>

52) 朱熹, <朱子語類五則>, 《朱子語類》卷140.

53) 《淳南遺老集》卷三十九, 《四部叢刊》影印舊鈔本.

故和其詩, 不知詩之爲淵明, 爲東坡也. 涪翁曰:‘淵明千載人, 東坡百世士. 出處固不同, 氣味乃相似’蓋知東坡之詩可比淵明矣”<sup>54)</sup>라고 말한 것은 소동파의 ‘和陶詩’ 만은 도연명의 시와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 VI. 陶淵明에 관한 題畫詩

宋代의 문단에서는 일찍이 도연명의 逸話나 詩文을 畫幅에 담아 묘사한 것이 있다. 이러한 묘사는 謝邁의 <陶淵明寫真圖>, 王十朋의 <觀淵明畫像>·<采菊圖> 등에서 볼 수 있다. 金·元代에 들어와서도 書畫藝術의 급진적인 발전과 번영으로 인해 도연명과 관계되는 그림과 書法作品이 많이 성행되었다. 이것은 도연명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연구방식으로 도연명의 생활과 시문을 쉽게 이해시키고 흥취를 돋구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유명한 書法家이자 圖畫家이며 문학가인 趙孟頫는 <桃源圖>·<歸去來圖>·<桃源>·<淵明> 등 도연명과 관련된 여러 폭의 그림을 그려 題畫詩를 썼다. 예를 들면, <桃源>이라는 畫幅에 “도화원에 들어가자 속세의 일을 잊어버리고, 어부는 다시 나루를 묻는 일이 없노라. 생각하는 것은 오직 밭 갈고 우물 파며, 전과 다름없이 순박하고 태평스러운 백성이라네.(桃源一去絕埃塵, 無復漁郎再問津. 想得耕田併鑿井, 依然淳樸太平民.)”라는 題畫詩를 썼고, <桃源圖>의 화폭에 “산중에는 나무하는 나그네가 없고, 냇가에는 고기 잡는 어부도 없네 비록 隱者의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도원은 어디에 있느냐?(山中無木客, 川上靡漁父. 雖懷隱者心, 桃源在何許?)”라고 쓴 五言詩는 독자로 하여금 仙境의 상상과 오늘의 처지에서 꾸밈없고 구속받지 않는 옛 참모습을 감상하게 한다. 그러나 아깝게도 趙孟頫의 화폭은 소실되어 오늘날 전하지 않지만, 도연명에 대한 題畫詩

54) 楊維禎, <張北山和陶集序>

를 통해 畫幅의 그림을 연상케 하여 도연명의 생활과 시문을 시각적으로 함축적으로 느끼게 한다. 王惲는 趙孟頫의 <桃源圖> 題畫詩를 쓴 것에 이어 다시 題畫詩를 써서 “제후가 나에게 보여준 <桃源圖>는 그림이 그려진 흰 명주가 찢겨지고 채색한 것이 변하였다. 의관과 제기는 三代째나 내려온 오래된 것이나 물건의 빛은 안심자들의 경지를 열어 놓은 것 같다. 당시 전하는 기록은 武陵桃源을 흠모하여 서술한 처음과 끝이 어떠한 沃土를 묘사하였는데, 王安石은 사실처럼 읊었고, 韓愈는 논리로 그 허실을 나열하여 의심스러움을 드러내었다. 천 년의 채색된 그림은 옛 사람이 남긴 말자취인데 桃源의 경지는 참으로 있는 것인지? (君侯示我<桃源圖>, 絹素剝裂丹青渝. 衣冠俎豆三代古, 彷彿物色開華胥. 當時傳記羨樂土, 序說本末何數腴. 半山歌詠似撫實, 昌黎論列疑其虛. 千年繪彩見遺跡, 桃源之境誠有無?)”<sup>55)</sup>라고 표현한 것은 그림을 감상하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서 눈길을 끈다. 이러한 題畫詩는 그림에서 풍겨주는 뜻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題畫詩를 지은 자가 도연명의 사상과 창작에 대한 평가를 거기에 곁들여 적었다. 이외에도 李俊民(1176~1260)은 <淵明歸去來圖>에 題畫詩를 달았고, 劉因(1249~1293)은 <歸來圖>에, 趙秉文(1159~1232)은 <東籬采菊圖>에, 王彝曾은 <陶淵明臨流賦詩圖>에 題畫詩를 쓴 것을 보면 金·元代에는 도연명과 관련된 圖畫와 題畫詩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VII. 《陶淵明集註》의 發刊

金·元代의 陶集註釋으로는 두 종이 나와 있다. 하나는 詹若麟의 《淵明補註》이고, 다른 하나는 劉履의 《陶淵明選詩補註》이다. 앞의 책은 吳澄에 의해 “우리 고향 詹若麟은 湯漢이 集註 한 바를 고찰하고 그를 발단으로 하여 그 뜻을 추구하였으니, 이에 굴원과 도연명의 마음을 환하게

55) 王惲曾, <題桃源圖後>

천 년 뒤에 드러내었다. 詹若麟의 공은 아마 주자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吾鄉詹麒若麟, 因湯所注而廣之, 考其時, 考其地, 原其序以推其志意, 於是屈·陶二子之心, 燦然暴白於千載之下. 若麟之功, 蓋不減朱子也.)<sup>56)</sup>라고 소개되었다.

劉履의 《陶淵明選詩補註》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劉履는 시대배경을 결합하여 시문의 뜻을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贈羊長史> 시에注를 달아 “의희 13년 太衛 劉裕가 後秦을 쳐서 長安을 격파하였는데, 後秦의 군주 姚泓을 押送하러 갔다가 建康에 이르러서 죽음을 당하다. 이때 좌장군 朱齡石이 長史인 羊松齡을 파견하여 관중으로 가서 칭찬과 축하를 하니 연명이 이 시를 지어 증정하다.(義熙十三年, 太尉劉裕伐秦, 破長安, 送秦主姚泓詣建康受誅. 時左將軍朱齡石遣長史羊松齡往關中稱賀, 而靖節作此詩贈之.)”라고 한 말과 그의 <歸園田居其二> 註에서 “천시의 변화로 서리와 싸라기눈이 내려 시들고 떨어짐이 초목과 같을까 두렵다. 대개 이러한 때에 조정은 위태하고 기우러지는 화가 있게 되는 고로 이런 비유를 하였다. 그런즉 도연명은 비록 전원에서 거처하였을지라도 나라에 대한 근심을 잊지 않은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다.(恐天時變革, 霜霰凋傷而零落同於草芥耳. 蓋是朝廷將有危傾之禍, 故有是喻然則靖節雖處田野而不忘憂國, 於此亦可見矣.)”라고 한 말은 당시의 시대배경을 참작하여 詩를 註釋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전체 작품의 흐름을 중시하여 종합적으로 논술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擬古> 아홉 수를 총체적으로 평하길 “대저 도연명은 은퇴한 후 지은 바의 시는 나라 잃음을 애도하고 시속을 상심하고 풍자하는 노래가 많다. 그러나 배척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은 고로 <擬古>·<雜詩> 등으로 그 제목을 지었다.(凡靖節退休後所作之詩, 類多悼國傷時託諷之詞, 然不欲顯斥, 故以<擬古>·<雜詩>等目名其題云)”라 말하였고, <飲酒其三>

56) 詹若麟, 《淵明集補註》, 北京, 商務印書館, 1934, 13쪽.

시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대도를 잃은 지 오래되고 사리사욕이 날로 증가하여 그 당시에 처한 사람들은 맑은 성정과 참을 보전하려 아니하고 한갓 세상의 영화만을 생각하여 스스로 속히 깨닫지를 못하였다. 이러한 응졸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으로 이름을 전하겠다는 것인가?(此言大道久喪, 情欲日滋, 當世之人, 不肯適性保眞, 而徒戀惜世榮, 不自速悟, 持此以往, 欲何所成而垂名乎.)”라고 말한 평<sup>57)</sup>을 보면 전체 작품의 흐름을 중시해서 종합적으로 도연명의 시문을 註釋한 것으로 보인다.

## VIII. 結 語

本稿에서 논술한 ‘金·元代의 陶淵明 研究’를 고찰한 결과 각 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金·元時代의 많은 漢族의 사대부들은 그들의 조국인 南宋이 멸망하자 그들의 수하인들과 친지들을 데리고 中原을 떠나 살면서 亡國에 대한 통탄의 울분을 터뜨리며 도연명의 憂國衷情을 그들의 시에 담았다. 魏·晉時代의 문인들이 당시 유행하였던 玄學과 老莊思想에 빠진 것과는 달리 도연명은 儒家로 당시의 사상을 精華한 자라고 평가하였으며, 벼슬을 하찮게 여기고 깨끗한 선비정신으로 ‘固窮節’을 실천하며 전월에 은거한 도연명은 儒家思想을 실천한 隱逸者의 상징으로서 仰慕하였다.

2. 도연명의 작품은 情과 景이 융합된 平淡自然의 정취를 眞率한 심정으로 읊어 도연명 특유의 藝術風格을 형성한 것이라고 唐·宋詩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金·元時代의 작가들도 그렇게 긍정하였다.

3. 金·元時代에는 도연명과 타인의 시를 비교하는 풍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도연명의 시와 타인 시의 장점과 단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부각시켜 도연명 작품의 우월성을 평하였다.

4. 金·元時代 시인들은 도연명의 시를 모방했거나 韻을 취한 작품이

57) 《四庫全書總目》卷189, 北京, 中華書局, 1965, 1712쪽.

외형상으로는 도연명 작품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내용 면에서는 도연명 시의 風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동파의 ‘和陶詩’는 도연명의 시에서 題目과 韻을 빌었다 하더라도 도연명과 다른 자기의 情趣를 읊어 새로운 田園의 場을 열었기에 도연명의 시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5. 金·元時代에는 도연명과 관련된 逸話와 詩文을 화폭에 담아 題畫詩를 지어 묘사하는 방법이 성행하였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도연명의 생활과 시문을 쉬이 이해하고 흥취를 돋구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6. 金·元時代에 나온 《陶淵明集註》는 도연명 생존 당시의 시대배경을 참작하여 시문의 註釋을 하였다. 그러나 그 註釋은 시대배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고 전체 작품의 흐름을 중시하여 종합적으로 풀이한 註釋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金·元時期는 비록 戰亂이 빈번하고 사회의 혼란으로 불안했지만, 唐·宋代를 이어 도연명 연구는 잠시도 중지됨이 없이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연구되었다. 그리고 金·元代 도연명 연구의 어떤 분야는 연구의 노력과 공헌이 값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연명과 다른 시인의 비교연구와 서법·회화방식으로서의 심층연구는 근대화적인 연구방법의 시도라고 할 만 하다.

#### < 參考文獻 >

-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 臺北, 華正書局, 1975.  
 鍾嶸 著, 曹旭集注, 《詩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詹若麟, 《淵明集補註》, 北京, 商務印書館, 1934.  
 楊家駱 主編, 《陶淵明詩文集評》, 臺北, 世界書局, 1974.  
 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 臺北, 九思出版社, 1977.  
 大矢根文次郎, 《陶淵明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昭和四十四年.

- 鍾優民,《陶學史話》,臺北,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1991.
- \_\_\_\_\_,《陶淵明研究資料新編》,長春,吉林教育出版社,2000.
- 《四庫全書總目》,北京,中華書局,1965.
- 《宋金元文論選》,北京,人民大學出版社,1984.
- 王運熙,顧易生 主編,《中國文學批評通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6.
- 王熙元,〈陶淵明的思想與人生觀〉,《慶祝婺源潘石禪先生七秩華誕特刊》.
- 車相轅,《新編 中國文學史》,서울,文理社,1974.
- \_\_\_\_\_,譯,《陶淵明》,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1.
- 胡雲翼 著,張基權 譯,《中國文學史》,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1974.
- 김영덕 외 2인 편지,《중국문학사》,서울,청년사,1990.
- 張基權 譯,《新譯 陶淵明》,서울,明文堂,2002.
- 金學主 譯,《陶淵明》,서울,明文堂,2002.
- 이지수 譯,《도연명 전집》,서울,(주)문학과 지성사,2005.

### <中文提要>

本文對所論述的‘金·元代的陶淵明’研究結果,作如下整理:

1. 金·元代許多士大夫在南宋滅亡之後,帶領手下和家人移居中原,他們的詩中充滿了對國家滅亡的憤懣和憂國憂民之情. 魏晉時代的人們陷入了當時盛行的玄學和老莊思想中,他認為仕途是無關緊要的,堅持以正人君子的精神來實踐“固窮節”,隱居田園的陶淵明也作為隱居者的典范受到尊敬.
2. 陶淵明的作品,以率直坦誠的心態抒發了情景交融,平淡自然的情趣,形成了他固有的藝術品格,正如唐宋詩人所提及的一樣,金·元時代的作家也對此給予了肯定.
3. 在金·元時代,陶淵明的詩同其他人相比較,自然地形成了雅趣. 刻畫出陶淵明的時,以及其他人的詩的長處與短處,相同點宅不同點,從而更加突出了陶淵明作品的偉大性.

4. 金·元時代的詩人，或是模倣陶淵明的詩，或是從形式上接近陶淵明的意蘊，然而從實際內容來講，都無法達到陶淵明詩的境界。但是蘇東坡的“和陶詩”，從陶淵明的作品中引用題目和韻味來表現自己的意趣，這樣同陶淵明的詩相比較，具有很高的價值。

5. 金·元時代盛行與陶淵明有關的逸聞和詩文，如題畫詩，這使得讀者能夠通過奇聞逸事來了解陶淵明的藝術世界，也對感受他的意趣有所幫助。

6. 產生于金·元時代的《陶淵明集注》對陶淵明生活的時代背景作了解釋，然而它並不是單純地對時代背景進行解說，而是重視所有作品中情感的流露，很多綜合論述的作品。

주제어 : 固窮節, 率直坦誠, 情景交融, 平淡自然, 題畫詩

